

‘납작한 시대’를 사는 우리의 자세

강주현 | 번역가

세계화로 인해 무역장벽이 낮아지고 정치장벽도 허물어진 것은 사실이다. 디지털 혁명으로 테크놀로지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 우리가 관심을 끄는 순간부터 변화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이것이 과거의 교훈이었다. 세계화로 지구는 하나의 공간이 되었고 모든 것이 상호연결되었다. 컴퓨터 자판을 슬쩍 누르는 것으로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간다.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로 우리 독자에게도 익숙해진 토머스 L. 프리드먼이 이런 관점에서 《세계는 납작하다: 21세기의 역사》를 발표했다. ‘21세기의 역사’라고 해서 프리드먼을 미래학자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 자신이 스스로를 평가하듯이 현실 세계를 올바로 읽어내면 미래가 보인다는 뜻에서 ‘21세기의 역사’라는 부제를 붙였다. 그런데 ‘납작하다’라는 뜻은 무엇일까? 중세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상호연결^{connected}로 이해하면 충분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무역 및 정치 장벽이 무너지면서 기업, 국가의 개념보다 개인이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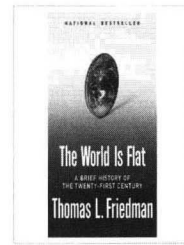
그럼 프리드먼은 21세기의 역사를 결정할 현재의 것으로 무엇을 꼽았을까?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2장이다. 저자는 ‘세계를 납작하게 만든 10가지 힘’이란 제목을 붙였다. 한 인터뷰에서는 ‘세계를 납작하게 만든 열흘’이라 설명하기도 했다. 현재를 읽으면 미래가 보인다고 생각하는 프리드먼이 제시한 10가지 힘 중에서 ‘납작한 세계’의 원동력이 되었던 세 가지만 살펴보자.

첫 번째 힘은 1989년 11월 9일에 있었다. 그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베를린 장벽이 있었을 때는 세계가 납작해지기란 불가능했다. 그러나 그 장벽이 무너지면서 동에서 서를 볼 수 있었고, 서에서 동을 볼 수 있었다. 재밌는 것은 ‘장벽이 무너지면서 윈도우 3.0이 출시되었다’라는 점이다. 정확히 말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6개월 후에 윈도우 3.0이 출시되었다. 두 번째 힘은 1995년 8월 9일

에 있었다. 이날 네스케이프가 공개되었다. 네스케이프의 탄생은 어떤 의미에서 개인의 삶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온 힘이었다. 인터넷 브라우저를 우리에게 선물하면서 자료와 정보의 공유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요컨대 현재의 인터넷, 즉 할아버지부터 어린 아이까지 인터넷의 사용을 가능하게 해준 출발점이었다. 또한 서울과 뉴욕이 옆집처럼 가까워졌고 정보의 교환비용이 거의 제로로 떨어졌다. 쉽게 말하면 p2p^{people-to-people}의 관계에서 장벽이 무너졌다. 이른바 닷컴붐, 혹은 닷컴버블이 가능한 것도 네스케이프의 탄생 덕분이다. 세 번째 힘을 저자는 ‘워크플로우^{workflow}’라 칭한다. 쉽게 말하면 모든 컴퓨터를 하나로 묶어버린 소프트웨어와 표준화였다. 위에서 언급한 3가지 힘은 1990년대 말에 거의 완결되었다. 이 힘들을 발판으로 삼아 세계화는 더욱 가속화될 수 있었다. 우리에게 익숙한 낱말이 되어버린 아웃소싱, 오픈소싱, 인소싱, 공장의 해외이전, 정보의 공유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다.

프리드먼은 재밌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제 우리는 ‘글로벌리제이션 3.0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다. 마치 윈도우즈의 변천을 본뜬 듯한 개념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21세기를 누가 주도할 것이냐는 점이다. 저자는 21세기의 주역을 대기업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라고도 생각지 않는다. 컴퓨터를 가진 프리랜서, 혁신적 사고를 가진 신생기업을 21세기의 주역이라 단언한다. 요컨대 저임금으로 승부하던 시대는 끝났다. 남다른 창조력과 디자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승리자가 될 것이라 말한다. 흥미진진한 일화를 곁들여 자신의 생각을 펼쳐가는 프리드먼의 글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 관심을 갖는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저자의 요구대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과거처럼 단순히 도태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유린당하고 밟아 뭉개지는 수모를 당해야 할지도 모른다. **▶▶**

English



원 제 《세계는 납작하다: 21세기의 역사》
The World Is Flat: A Brief History of the Twenty-first Century
 저 자 토머스 L. 프리드먼(Thomas L. Friedman)
 출판사 Straus and Giroux

미국에 의한 일본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윤성원 | 번역가

Japanese



원 제 《거부하지 못하는 일본》
저 자 세키오카 히데유키
출판사 문예춘추文春新書

고이즈미 자민당이 296의석을 획득함으로써 역사적 인 압승을 거둔 요인으로 고이즈미식 경제개혁과 경기회복에 대한 일본국민의 기대가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고이즈미 총리의 총선 승리로 정부 지출감소, 우정민영화, 기업투자촉진 등 기존의 경제 개혁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일본 내에서는 지배적이다. 실제로 최근 어느 한 방송사의 조사에 의하면 고이즈미 정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90퍼센트를 상회하였다는 기록적인 수치가 보도되기도 하였다. 아무튼 그의 압승 요인이 그의 카리스마에서 기인한 것이든, 포퓰리즘populism에 의한 것이든, 선례를 찾아보기 힘든 지지율을 획득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듯하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의 지식인 중에는 반고이즈미 정서를 갖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은 현실이다. 이 책은 2004년에 발간된 이래 양서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고이즈미가 재선된 이후로 이 책을 찾는 이들이 적잖게 늘어난 모양이다. 전직 은행원이었던 저자, 세키오카 히데오는 미일관계의 전문가도 아니다. 그는 자신의 석사논문 테마로 일본 건축기준법의 개정을 선택한 것을 계기로 고개를 들기 시작한 의문점들을 끈질기게 파헤치다보니 한 권의 책이 완성되었다고 한다. 건축기준법의 개정, 반세기만의 대대적인 상법개정,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강화, 사법제도의 개정 등 폭넓은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본 내의 구조개혁이 모두 미국의 국익과 직결되어 있다고 저자는 과감히 단정짓는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객관적 사실과 공문서를 근거로 한 진상의 규명이라 강조하니 독자들이 무조건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일 것이다.

실제로 저자는 일본정치를 분석하여 획기적인 발견을 이룩하였다는 평가를 얻기도 하였는데, 그 첫 번째는 '미국에 의한 일본개조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정부의 문헌에 의해서 밝힌 점이고, 두 번째는 일본개조의 근원이 된 '연차개혁요망서年次改

革要望書'라는 문서를 발견한 점이다. 이 문서는 10여 년 전 미야자와 수상과 클린턴 대통령의 합의로 효시로 매년 미일 양국 정부사이에서 교환되어 온 것으로 형식은 '요망서'이나 실행의 여부가 점검되고 있으니만큼 사실상 미국정부의 명령서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 공문서가 주일미국대사관의 웹사이트에 버젓이 공개되어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그런 연유로 일본정부는 '요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거부하지 못한다'고 저자는 피력한다.

저자는 고이즈미가 체신부장관 시절부터 그 필연성을 부르짖었으며 변함없는 그의 최대 관건인 우정민영화郵政民營化도 알고 보면 미국 보험업계의 요구이며 '연차개혁요망서'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일축해 버린다. 정부가 민간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는 고이즈미의 발언과는 전혀 다른 맥락인 셈이다.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에게 유리한 법체계를 가진 나라로 개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좀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일본의 행정기관은 미국정부의 대일정책담당자에게 조종되고 있으며 일본의 정치와 행정이 미국정부의 일부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정부가 그들의 기준을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칭하며 밀어붙이는 경위가 독자의 감정을 자극할 정도로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진상 여부에 대한 검증 그 자체보다도 자신의 나라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의욕이 쇠퇴해 버린 오늘날의 일본에 대한 한 일본지식인의 위기감이 반영된 문제의식을 제기한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며칠 전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일본사법부의 보도도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대중의 높은 지지율이라는 것이 절대적이지는 않은 모양이다. **한글**

‘골루아 정신’ 농축된 프랑스의 자존심

조정훈 | 번역가

요즘 프랑스 서점가의 베스트셀러 1위는 프랑스의 ‘국민만화’ 《아스테릭스》가 차지하고 있다. 1961년 첫 권을 발행한 뒤, 이번에 나온 책이 《아스테릭스》 시리즈의 33번째 권이다. 재미있는 것은 아스테릭스 33번째 권이 서점 매대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역시 세계적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발간된 《해리포터》 제6권이 2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금 확대해석하자면 프랑스에서 《아스테릭스》는 초강대국 미국의 공세에 맞서 문화대국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문화적 첨병인 셈이다. 이상하게도 《아스테릭스》와 《해리포터》는 프랑스인들의 미국에 대한 문화적 우월감(또는 열등감) 내지는 경쟁의식을 상징하는 라이벌로 자주 등장한다. 2002년 영화 《아스테릭스와 오벨리스크: 클레오파트라》가 개봉되었을 때도 7주 동안 1,5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해리포터》의 700만 관객을 가볍게 뛰어넘었다. 우리가 보기엔 조금 황당해 보이는 이 영화엔 배우 제라르 드빠르디유, 크리스티앙 클라비에, 모니카 벨루치 등이 총출연했었다.

잘 알다시피 만화 《아스테릭스》는 대제국 로마의 거대한 물리력에 맞서 싸우는 골(Gaul, 갈리아) 지방 작은 부족의 영웅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이는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미국의 패권주의에 맞서는 골족의 후손, 프랑스인이라는 설정과 묘하게 맞아떨어진다. 사실 프랑스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 《해리포터》가 자신들의 문화콘텐츠를 제치고 극장이나 서점 매대를 점령한다는 것이 심히 자존심 상하는 일일 것이다. 적어도 그들의 견해로 《해리포터》가 막대한 자본과 홍보를 무기로 단기간에 세계를 제패한 ‘히트상품’에 불과하다면 《아스테릭스》는 지난 40여 년 동안 꾸준히 사랑받아온 프랑스의 자랑스러운 문화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인들이 《아스테릭스》를 단순히 만화책을 넘어서 자신들의 자랑스러운 문화로 여기는 또 다

른 이유는 이 만화의 저변에 이른바 ‘골루아 정신 esprit gaulois’이라 부르는 프랑스인 특유의 정신이 녹아 있기 때문이다. 골루아 정신이란 프랑스인들이 자신의 조상이라 여기는 골족 특유의 기질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프랑스인들의 낙천성을 바탕으로 한 풍자와 해학정신을 가리킨다. 이 골루아 정신은 프랑스의 수준 높은 예술과 철학을 가능하게 했고 프랑스인들의 핏줄 속에 이어져 문화적 활력을 주는 에너지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만화 《아스테릭스》의 주인공들의 독특한 캐릭터와 기발한 유머들은 단순한 작가의 상상력이 아니라 골루아 정신이라는, 역사적 깊이를 지닌 문화 속에서 탄생한 것들이라는 것이다.

프랑스 사람들이 《아스테릭스》를 얼마나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는 그동안 이 만화가 쌓아놓은 기록들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1961년 아세트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한 이후 이 책은 힌두어, 슈바멘어, 에스페란토어 등 세계 90개 나라 말로 번역되어 출간되었으며 올해 제33권이 나오기까지 무려 3억 부나 되는 엄청난 양이 팔려나갔다. 지금까지 팔려나간 이 책들을 쌓아놓아도 에펠탑 7,000 개의 높이에 해당하는 양이다. 또한 1967년 만화영화로 만들어진 이후 7편의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었고 맥도날드에 맞선 아스테릭스 버거, 컴퓨터 게임에 이르기까지 캐릭터 상품의 규모도 1억 달러에 이른다. 그리고 미국의 디즈니랜드에 대항하기라도 하듯 1989년엔 테마파크인 ‘파크 아스테릭스’를 지어 매년 200만 이상의 관람객들을 유치하고 있다. 이 만화를 탄생시킨 두 주역 중 하나인 르네 고시니(이 만화의 작화는 르네 고시니, 그림은 알베르 우데르조가 담당했다) 1977년 세상을 뜬 뒤에도 3년 또는 4년의 공백을 두고 꾸준히 시리즈가 이어져온 것은 그만큼 이 만화가 프랑스, 나아가 유럽을 대표하는 문화코드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일 것이다. 📖

French



원 제 《아스테릭스 Asterix》
저 자 르네 고시니(Rene Goscinny)
& 알베르 우데르조(Albert Udeuzo)
출판사 알베르 렌(Albert Rene)

(* 아스테릭스 시리즈의 출판사는 계속 바뀌어 왔으며 현재는 알베르 렌이란 출판사가 책을 내고 있다.)

‘학문에 미친’ 두 학자의 다른 모습

김재혁 | 번역문학가, 시인, 고려대 교수

German



원 제 《세상을 잴 두 사람》
Die Vermessung der Welt
저 자 다니엘 켈만 Daniel Kehlmann
출판사 로볼트 Rowohlt

독일에서 학문의 대중적 두 인기 스타를 소재로 하여 재미있는 여러 가지 일화로 양념을 친 전기소설이 출간되었다. 현재까지 다섯 권의 장편소설을 출간하여 독일 문단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신예작가 다니엘 켈만의 《세상을 잴 두 사람》이다. 열케 하이덴라이히 같은 프로페셔널한 독자들로부터 켈만은 소설 《세상을 잴 두 사람》으로 이미 극찬을 받은 바 있다. 독일 비평계의 황제라고 일컬어지는 마르첼 라이히 라니츠키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다니엘 켈만을 무조건 추천한다. 지적 능력, 관찰력 그리고 대화를 이끌어가는 그의 능력을 보라.” 그 사이에 이 소설은 독일 서적상 후보에 지명되었으며 이 상을 받을 가장 유력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를 시대적 배경으로 전개되는 이 소설의 두 주인공은 학문에 미친 사람들이다. 이들의 생의 주요 정거장들이 허니가 열쇠구멍으로 훌륭한 주인마님의 방을 훑쳐보는 듯한 시각으로 흥미진진하게 우리 눈앞에 전개된다. 물론 여기엔 사실과 허구가 절묘하게 혼합되어 나타난다. 수학자 칼 프리드리히 가우스가 세상을 머리로 계산하고 재고 그렇게 해서 법칙을 발견하는 반면, 알렌산더 폰 훔볼트는 자신만의 체험을 쌓기 위해 언제나 세상 밖으로 나간다. 그는 세상을 자기 방 안으로 가져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남아메리카로 여행하여 1800년엔 유럽인으로는 처음으로 배를 타고 오리노코 강이 리오네그로와 자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하고 1802년에는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여겨진 침보라소 산을 처음으로 등반하고 열정적으로 식물을 채집하고 동물들과 미지의 종족들의 의식을 관찰한다. 켈만은 이렇게 서술한다. “반 년 뒤에 훔볼트는 뉴인달루시아에서 그에게서 도망칠 만한 발이 없거나 그에게 겁을 내지 않는 것들을 모두 조사했다. 그는 하늘의 색깔을 조사하고 번개의 온도와 밤서리의 무게를 잴고, 지진을 연구하였으며, 시신을 매장한 동굴에도 들어가 보았다.” 심지어 그는 동굴

에서 두 인디언의 시체를 꺼내 끌고 다니기까지 했다.

반면 가우스는 훔볼트와 달리 여행을 싫어했다. 엄격한 규율을 사랑하는 그는 남의 방해받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을 좋아했으며 스스로 질문을 하는 일에 몰두했다. 이를테면, “숫자란 무엇인가. 수학의 기초는 무엇인가.” 신혼 첫날밤에도 가우스는 얼른 연필을 잡아야 했다. “하필 이때 행성의 궤도에 대한 잘못된 측정치를 대략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1828년 훔볼트의 주재로 베를린에서 열린 자연과학자 대회에도 가우스는 마지못해 참석한다. 그는 송고한 숫자의 세계와 천박한 일상 사이에서 방황하는 분열된 삶을 살았다. 천재라 하더라도 치과에 가야 하고 아내와 자식들에게 시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 소설의 재미는 두 위대한 인물 사이의 극단적인 대조뿐만 아니라 그들 자체의 삶에 내재되어 있는 우스꽝스러움에서 연유한다. 이를테면 훔볼트의 러시아 연구여행은 금방 우스꽝스러운 형태가 되고 마는데, 그것은 그때 이미 유명인사가 되어 있던 그의 명성 덕분에 그의 원정대에 서로 참여하려고 신청을 하여 원정대의 규모가 100명이 넘었고 가는 곳마다 그는 연구는커녕 대부분의 시간을 환영 연회에 참가하는 데 보냈기 때문이다. 본인 자신은 진지하게 수행한 학문적 여정이 우리에게 우스움을 자아낸다. 이렇게 이 소설은 자잘한 일화에 기대면서 두 인물의 간극에서 오는 대조적인 삶의 형태를 보여주는 가운데 이들이 살아간 삶의 궤적을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때론 진지하게, 때론 우스꽝스럽게 보여준다.

다니엘 켈만은 1975년 뮌헨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빈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 12개 국어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장편소설과 단편소설로 많은 문학상을 수상했다. 최근에는 칸디드 문학상(2005년)을 수상한 바 있다. 그의 장편소설 《나와 카민스키》(2003)는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김재혁**